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말씀과 함께하는 서울교회 젊은이들"

새가정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1부 수련회 시작되다

매일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지친 육신을 평안히 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할 때 가 왔다.

지금 우리의 몸이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영혼이 기갈에 지치다 못해 죽어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되돌아보고 영혼의 기갈을 모른 채하며 지내움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

기 위해 '임하소서 성령이여'를 주제로 7월15일부터 이종윤 목사를 주강사로 모시고 새가정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1부 수련회가 가장 먼저 치악산자락에서 여름수련회를 시작으로 개인의 영성 회복을 간구 한다. 20~30대의 성도는 기도로 준비하여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농촌전도대 파송 준비시작 8월7일(화)~8월10일(금) 까지 4일간

올 여름 우리교회의 농촌전도대는 전라북도 완주군 모악제일교회로 파송된다. 농촌전도대는 어려운 현지 형편으로 미자립하는 농어촌의 소규모 교회를 대상으로 봉사활동과 전도활동을 10년째 펼쳐 오고 있다. 농촌전도대에 지원하는 대원들은 자신의 휴가시간을 조정하여 축호전도, 이-미용 서비스, 의료활동, 한방진료(침, 뜸) 등 전방위 집중 전도활동을 펼쳐 파견된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파견 교회의 자립과 영적 부흥에 크나큰 일조를 하고 있다.

위해 성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전도대에서 함께 활동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청-장년과 물품과 후원금으로 지원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란다.
▶봉사분야: 전도, 이-미용, 의료, 한방진료(침, 뜸), 기타
▶필요물품: 컴퓨터 1대, 교회안내간판, 아동용 티셔츠 50벌, 대원용 티셔츠70벌, 아동간식 60명-3회,주민초청간치-50명-3회, 전도용 부채 500개, 수건 300개, 돋보기100개 등

올해도 '모악제일교회'로 파송되는 전도대는 효과적인 전도와 원활한 봉사활동을

단기선교팀 파송 4주 앞으로 다가와

단기선교팀 파견이 4주 앞으로 다가와 워싱턴, 찬양, 태국어 찬양준비, 기도준비, 말씀준비, 영적지식으로 무장을 계속하고 있다. 오는 7월 21일(토) 새벽에는 청계산을 등산중주하며 체력단련을 하며 현지 적응훈련을 갖는다. 계속적인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

주님과 교통하는 새벽예배

홍해작전의 열기를 이어가

새벽기도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새벽시간에 기도하셨을 정도로 중요한 시간이다. 현재, 매일 새벽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드리는 우리교회의 새벽기도가 홍해작전의 열기를 이어가며 풍성한 말씀, 넘치는 은혜, 뜨거운 기도의 시간으로 드러지고 있다.

주님께 자신의 하루 중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홀이 차고 넘쳐 머지않아 본당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지금 말 못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는 새벽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문제해결의 해답을 얻도록 한다. 우리교회의 새벽예배는 매일 오전 5시30분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드려지고 있다.

만민에게 전도하는 교회



① 공산권 신학교설립
답사팀 파송예배
-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니"
(행: 22:21)



② 단기 선교팀의 훈련은 계속 되어진다. 주~옥 -기도, 태국어교육, 워싱턴댄스, 등산등 영적무장을 하다 ②③



교회학교 여름행사

부서	장소	일시
유치부	교회	7/23 ~24
유년부	교회	7/23~24
초등부	교회	7/23~24
중등부	산음 휴양림	7/23~25
고등부	산음 휴양림	7/26 ~28
대학부	치악산 농원	7/16~19
청년부	치악산 농원	7/16~19
새가정부	치악산 농원	7/15~17
장년1부	치악산 농원	7/17
장년5부	교회	7/17
사랑부	교회	7/17

우리 교회 각 교회학교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일정이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올 해의 주제는 「임하소서 성령이여!」이며 각 교회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역자 하기 휴가 일정이 다음과 같이 잡혔다.

성명	기간	업무대행	후대전화
이성득	7.30~8.4	정윤돈	011-257-8407
정윤돈	8.13~8.18	고경선	011-9744-0190
고경선	8.27~9.1	이규정	011-9061-7161
이규정	8.23~8.28	이성득	011-9034-8408
이태훈	8.6~8.11	지혜영	017-523-9784
지혜영	7.16~7.27	이태훈	016-224-4905

교역자
하기휴가
일정

이사야서 강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중운 목사

유대 민족이 비록 보잘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9절) 하시고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에 넣었다가 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지 멸망에 처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하심을 행하실 증거가 본문에 있습니다.

1. 그 분만이 홀로 하나님이며 영원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누가 처음이신 그 분보다 빠르거나 앞설 수 있습니까? 누가 마지막이신 그 분보다 더 강하게 역사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계획은 처음부터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의 행사는 완전하십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13절).

아래를 보면 땅이 견고합니다. 그 기초를 정하신 것은 그분의 손입니다. 또 위를 보면 하늘이 차양처럼 펼쳐 집니다. 그것을 펴신 것은 그분의 오른손입니다. 뺨으로 치수를 재고 정확한 치수로 그것을 펼치셨습니다. 그의 오른손 뺨이 하늘을 펼칠 정도로 넓다면 그의 펼친 팔로는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분은 천지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의 사명을 위해 부르실 때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13절) 그에게로 와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라고 그들의 이름에 대

이사야 (48:12 - 16)

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렇게 대단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유대인에게 그의 약속을 믿으라고 합니다. "나를 들으라"(12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으며(12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체라도 부르시면 그것은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만일 구원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약속이 이루어져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시면 그분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미 6:7).

믿음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언약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견하셨으므로 구원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14절). 이방 신들이나 그들의 제사장들은 장래 일을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포로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해방과 회복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15절). 하나님은 성취하지 아니할 것은 한 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4, 16절에는 '들으라'는 말이 각각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파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 바벨론을 멸하고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①여호와와 사랑하는 자, 즉 고레스를 하나님이 임시로 세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은총과 영광을 베푸시고 그에게 권위와 인도를 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어 일하시다가 후에 버

리셨습니다(삼상 10:10). 하나님은 그 때마다 쓰임에 필요하도록 세우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②하나님은 고레스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나 끝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15절).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힘있게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미래를 확정적으로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14절).

유대 민족의 해방을 예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므로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봉사할 인물이 이미 선정되었고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설정되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3.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은혜가 더 큼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회상해 보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의 약속을 믿게 될 것입니다.

"너는 이 목사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합 2:2).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숨김없이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둡거나 모호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이 퍼져나가는 순간부터 거기에 계시고 항상 놀랍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하신 그가 끝까지 함께하실 것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의 말씀을 붙잡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대대히 증거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민화 권사(5교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흥해작전 열흘째 되는 6월 15일 새벽에 신림동 건널목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온 몸이 부서진 것 같아 눈앞에 캄캄하고 가슴이 떨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급히 병원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왼쪽다리에 외상을 입었을 뿐 아무 이상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흘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이 즉시로 오셨습니다. 모두들 피곤하실텐데 부족한 저를 위하여 심방하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흥해작전에 참석하리라 다짐했는데 원치 않는 사고로 병원에 있고 보니 아쉬운 마음뿐이었지만 모든 성도님들께서 흥해작전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병상에서나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흥해작전이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기뻐하는 성도님들의 우렁찬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지금도 하루 빨리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다리가 무겁고 걸음걸이가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건강한 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리라 다시 한 번 마음에 다짐합니다.

수련회를 앞에 두고

이시내(청년부)

구부러진 길모퉁이.

예전에 어느 책에선가 보았던 이 말이 요즘 계속 나의 머릿속을 맴돈다.

하나의 길이 끝나는 곳, 구부러진 그 끝의 저편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기 힘든 시간.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향하기 전, 어찌면 영영 마지막 방학이 될지도 모르는 약간의 기간. 나에게 그렇다, 이번 여름은. 작년 이맘때, 청년부에 와 처음으로 맞았던 숲속에서의 수련회. 지금도 떠올려지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서늘한 나무향이 배어나던 숙소, 그리고 동기들끼리 환방을 쓰면서 오랜만에 서로에게 터놓았던 마음.

같은 나이를 지나는 우리가 공감했던 고민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던 대화. 각각을 다르게 만드시고 여러 모습으로 이끄시지만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젊은 때를 함께 하게 하신 주님께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생각없는 세대에서 생각을 새로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낸 1년 후, 올 여름 우리가 다시 하나로 모이는 기간.

그 때, 우리가 새롭게 품었던 마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시간. 답답하고 흐릿하던 마음을 맑게 하셨던, 상처와 열룩이 있는 곳을 싸매셨던,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기대치 못했던 새로움을 부여하셨던 그 손길을 기억한다.

알지 못하는 모든 것 앞에서 평안케 하시고 불안한 의심의 몸짓 대신,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 지에 대한 끝없는

중국에서 온 편지

필자 한원식은

전근녀 집사(7교구)의 아들로
중국에서 교통사고후 사경을 헤메였으나
성도들과 목사님의 기도속에
니음을 받고 편지를 보내왔다.

주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사님과 전도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의 합심의 기도가 주 앞에 열납되어서 주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저의 병을 이처럼 빨리 회복시켜주시고 걸음을 걷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이번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의사들도 희망이 없는 이런 환자가 빨리 낫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2001년

대학·청년 연합 여름 수련회를 기다리며

주제: 생각없는 세대에서 생각을 새로 하자
감사: 이종윤 목사, 고경선 목사, 정운돈 목사
일시: 2001년 7월 16일(월)~19일(목) 3박4일
출발 일시: 16일 오전 8:00 (전체 참석자),
16일 오후 7:00 (아류 참석자)
장소: 강원도 원주 치악산 관광농원
준비물: 존비된 마음, 성경찬송, 필기도구,
침낭(필수), 갈아입을 옷, 긴팔옷, 상비약
회비: 3만5천원

물음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간으로 나 역시 가장 꾸밈없이 나아가기를, 약하고 마음 산란한 기도를 하는 중에 제일 길에 계신다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여름 간절히 소원해본다. 한 영혼만 사랑하듯 우리 각자를 기다리고 계실 그분이 젊은 우리 안, 모든 목마름 채우실 줄 믿으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혜진(대학부)

기독 청년의 뜨거운 여름 수련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혼란한 세대에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고자 고민하는 서울교회 젊은이들이 뭉쳤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갖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생각 없는 세대'에서 생각을 새로하자는 주제와 로마서 12:1-2의 본문을 가지고 이종윤 목사님께서 총8회의 '전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이때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부르짖는 기도가 자식들에게 응답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서울교회의 많은 집사님과 성도들이 보지도 못한 머나먼 중국 땅에 있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새벽기도로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나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정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심할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극한 관심으로 이처럼 복음 테이프를 주일마다 하나씩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테이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서울교회 이종윤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의 놀라운 사랑과 기도를 해주심으로 병이 낫게 되고 복음테이프를 듣게끔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꼭 받은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웃에게 전하며 살리라고 결심합니다.

이것으로 끝을 맺으면서 목사님의 모든 계획이 주안에서 행통하게 이루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01년 6월5일

아들 한원식, 며느리 김복화 올림

강원도 원주 치악산 관광농원으로 바로 오셔도 되지만, 7월 16일(월) 오전 8시에 교회 앞으로 오시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전환 말씀과 뜨거운 찬양, 마음껏 끼를 발산하는 성극경연대회, 소그룹 친분을 과시하는 찬양 Festival, 진지한 독서토론, 젊은 고민을 나누는 Youth & Love, 치열한 성경퀴즈대회 등 다양한 공동체 훈련과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풍성한 간식도 있습니다. ^^

그럼 내일(16일 월요일) 아침 8시 교회 앞에서 뵙겠습니다.

위임목사님과 젊은이

정운돈 목사(대학부 담당 교역자)

이종윤 목사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인가요? 엄하고 빈틈이 없으시며 바르지 못한 것은 거리낌없이 책망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금번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서울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서울교회 젊은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옆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많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에 초청합니다!

새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신 가정

-어떻게 서울교회에 나
오시게 됐지요?

집은 잠원동인데 딸(예림:고2)을 교회 근처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빨간 십자가가 탑을 보게 됐지요. 예쁘게 지은 예배당을 쳐다보며 호기심에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2개월 정도 다니다가 등록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결혼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홍 집사는 믿는다는 약속 하에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림이는 이름도 예쁘네요. 예림이가 특히 언제 제일 예쁜가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듯 아무래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업에 충실할 때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정집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수년간 고생했는데 이제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으니 회복된 몸으로 열심히 봉사토록 노력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

-일년 중 홍 집사님이 정 집사님께 드린 선물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결혼기념일, 성탄절, 생일을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주는데 선물은 없어도 정성스런 카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아둡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감은?

목사님 말씀이 알차고 인격적으로 다가와 만족합니다. 다들 한 식구처럼 친절한 것도 인상적이었구요.



탐방 - 유아부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의 그림을 그려 넣는 부서

우리 교회의 유아부는 0-4세까지의 영아와 유아들을 교육하는 교회학교의 한 부서이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의 하나님과의 즐거운 만남은 분명 유아들의 기독교적 인격형성에 대단히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귀한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그림을 그려 넣는 유아부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부서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들과 일시에 몰려드는 부모님들과 아이들로 인해 예배 시작 전 유아부실 앞은 순식간에 시끌벅적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과연 제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까? 하지만 맑은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끝내 울음을 그치지 않는 몇몇 아이들이 놀이기구가 있는 402호로 옮겨지고 아이들이 강대상 맨 앞에 정렬해서 앉고 어린 영아들을 안은 교사들이 그 뒤쪽에서 예배 시작을 기다리고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석을 채우자 예배 시작 전의 정신 없던 분위기는 이미 온데 간데 없어지고 예배가 시작된다.

유아부의 예배에서는 특히 아이들이 찬양과 율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반복하면 쉽게 배우기 때문에 찬양

과 율동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더욱이 4살 이하의 어린 유아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의젓하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또한 은혜스럽다.

또 비디오 녹음기 OHP 슬라이드 등 각종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공과공부시간에는 성경의 내용을 응용한 색칠하기와 붙이기, 놀이와 만들기 등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다.

"유아부는 단지 부모님께서 예배드리시는 동안 유아에게서 부모님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부서가 아니며 아이들의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교육부서"라는 유아부 교사들의 이야기를 실감 할 수 있었다.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유아부의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김시환(편집부)



흰 도화지같은 어린 생명들 - 그 영혼에 그리스도가 그려질
길 바라는 유아부교사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 하장자 권사(7교구)

패역하여 강포가 가득한 이들을 위해
실직이고 삶에 허덕이며 방황하는 자를 위해
앞날을 짊어지고 갈 자녀들을 위해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를 위해
지은 죄의 허물을 회개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 달리다룸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네가 너를 도우려라
네가 너와 함께 이겠노라
에타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뢰와 같이 완악한 이 땅
세벽을 깨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로 깨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 서울교회여!
세벽을 깨우라
기도로 씨를 뿌려라
단을 거두는 날이 속이 오리라

동정

- 전정아 성도, 김영환 성도(7교구) 특남
- 이칠우 성도 홍의숙 성도(4교구) 특남
- 선우중성 집사(1교구)는 정보인증기술연구소장으로 영전하였다.
- 장효호 집사(4교구) 잠원동 한신 17차 아파트로 이사
- 김유선 성도 (2교구) 개인전 7월 18일~29일 인사아트스페이스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송성식 집사 정희순 권사 가정
-자녀의 결혼을 은혜 중에 마치고-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국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여름철 교회행사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